

▶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제주도와 교류공연

# 천년의 울림, 락(樂)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관현악단은 22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천년의 울림, 락(樂)'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과 제주도립무용단의 교류공연 일환으로 '전북의 익산백제왕궁지구'와 '제주해녀'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3월 제주공연에는 전북도립국악원관현악단이, 7월 전북공연에는 제주도립무용단이 출연한다.

백제의 고악기 공후와 전라도의 멋·관소리 쑥대머리 협연은 전북이, 아름다

**22일 제주문예회관서  
제주도립무용단 출연  
전통예술의 멋 선보일 듯**

운 춤사위의와 심장을 울리는 사물놀이 협연은 제주가 맡는다.

국악원 창극단 유재준 단원의 진행으로 시작되는 첫 무대에는 국악관현악의 '아리랑'이 연주된다.

이어 공후를 위한 국악관현악 '견훤'을 조보연 관현악단 수석단원의 공후협

연으로 선사한다.백제 땅에서 배출한 영웅 견훤의 일생을 담아낸 곡은 그의 과감한장한 삶 속에서 화려했던 시절을 음악으로 그려낸다.

창과 국악관현악 '쑥대머리'는 창극단 지도위원인 차복순의 관소리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 대목은 듣는 이의 심금을 비통한 슬픔의 계곡으로 몰아넣는 부분으로 춘향가의 슬픈 감정을 잘 나타낸다.

온고을로 떠나는 '봄·마실·길'은 축제의 도시 전북도의 일상을 담은 국악연주곡이다. 전통문화가 올바르게 지켜지고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전북도의

멋스러움을 국악관현악으로 표현한다.

국악관현악과 제주도립무용단의 만남 '멋으로 사는 세상'은 웅장한 사운드와 제주도립무용단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전통예술의 다양한 멋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심모듬'은 서귀포예술의전당 삼주단체인 국악연희단 하나야트의 사물놀이 협연으로 마련된다. 곡은 민속음악 장단 특유의 역동성에 바탕을 둔 곡으로 태평소와 사물의 선율, 타악주자들의 영혼을 울리는 역동적인 두드림이 돋보인다. /정해은 기자

##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 창작의욕 고취 돕는다

전주문화재단, 오늘부터  
신진예술가 4기 지원사업 공모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젊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전주신진예술가 4기 지원 사업' 공모를 20일부터 내달 4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를 연고로 활동하는 유망한 신진예술가를 발굴·지원하여 문화예술 진흥의 초석을 마련하고, 신진예술가 창작의욕 고취 및 창작품 실현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전주에 거주한 자로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만35세 이하의 출생자(1982. 1. 1~1997. 12. 31) 이다.

지원부문은 신진예술가 창작품의 성숙을 기하는 '데뷔작품 지원' (만20세 이상 만29세 이하)과 신진예술가 창작품의 완숙을 기하는 '유망작품지원' (만30세 이상 만35세 이하)이다.

특히 올해는 신진예술가 창작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실연공간지원' (만20세 이상 만35세 이하) 부문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접수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소개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진행과정을 공유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jc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4월17~21일) 내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4월 25~28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심층면접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선정자들에게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전문가 활용(전문가 자문 워크숍, 전문가 리뷰 등)을 통한 작품성 및 완성도를 위한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 ▶▶ 공연 & 전시 ◀◀

#### 전주시립국악단 신춘음악회 '프리즘prism'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신춘음악회를 연다.

이날 음악회에서 국악단은 프리즘의 빛만큼이나 다채로운 국악관현악 선율에 실려 보낸다.

첫 무대는 기개와 활기가 넘치는 '말발굽소리'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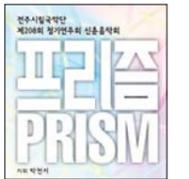
곡은 말에 대한 음악적 표현이 풍부한 몽골인들의 열정적 마음·영광·행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말발굽소리의 독특하고 다양한 리듬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의 전통장단 자진 모리, 휘모리장단과 비교하여 감상해도 좋은 곡이다.

이어 고대가요인 '공무도하가'를 주제로 작곡된 곡을 들려준다. 공무도하가 속의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공후를 타며 비통한 심정을 노래한다. 곡에는 시에 담긴 사랑·이별·죽음을 서정적으로 그려진다.

남녀 간의 사랑을 흥겨운 노랫가락에 얹은 매화가를 토대로 작곡된 '매화, 봄 향기 속으로' 곡은 입에 대한 그리움과 늦은 봄을 절묘하게 대비시켜 놓았다.

'흥부가 중 제비노정기'는 제비가 중국의 남방에서 조선으로 날아오는 여정을 관소리로 부르던 것을 가요 스타일과 접목해 재편곡한 곡이다.

대미를 장식하는 '청산'의 선율은 시용향약보에 나타나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주제로 한다. 곡은 우리나라 산의 아름다움과 고려시대 음악의 신비함을 표현한다. /정해은 기자



## 국립합창단 '베르디 레퀴엠' 군산에 오다

올 하반기 군산예술의전당서 공연

'2017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에서 국립합창단 대표공연 '베르디 레퀴엠'이 선정되어 올 하반기에 군산시민에게 선보이게 된다.

국립합창단은 1973년 창단된 세계 최고의 전문합창단으로 바흐의 마태수난곡, 요한수난곡 등 유명 합창곡을 대한민국에 소개하였고, 르네상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유명합창곡을 모두 무대에

올림으로써 합창음악의 모든 장르를 폭넓게 소화해내고 있다.

또한 합창의 대중화와 합창음악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공연을 통해 수준 높은 한국 합창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베르디 레퀴엠은 수많은 레퀴엠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 평가받는 곡으로 국립합창단의 히든 레퍼토리로 정평이 난 작품이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강렬하면서도 웅장한

울림, 호소력 있는 선율과 곡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극적인 효과가 특징인 명작이다.

군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비사업 유치를 통해 시민 문화욕구를 충족 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비 공모사업인 만큼 저렴한 가격은 물론 문화소외계층 초청으로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통해 감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